

연중 제10주일

기도서 367면 (다해)

제1독서: I 열왕 17, 17-24

제2독서: 갈 라 1, 11-19

복 음: 루 가 7, 11-17

# 순정이

“그때 예수께서 ‘젊은이여 일어나라’ 하고 명령하셨다. 그랬더니 죽었던 젊은이가 벌떡 일어나 앉으며 말을 하기 시작하였다”

(루가 7, 14)

## 강론

## 소리

### 폭력 경찰

### 죽음을 극복하는 길

박 성팔 신부 / 서신동 천주교회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온갖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 이를테면 가공할 만한 전쟁, 공해, 나올 수 없는 질병, 살인강도, 인신매매 등…… 그러나 이러한 것들 중에 제일 두려운 것은 뭐니뭐니 해도 남이 아닌 바로 내가 죽는다는 사실이다. 때문에 사람들은 어떤 경우가 죽음앞에 비겁해 지기도 하고, 용감해 지기도 한다. 하지만 대개의 경우 사람들은 까맣게 죽음을 잊어 버리고 산다. 아니 잊어버린다기 보다는 자신의 죽음을 생각하지 않기 위해 미친듯이 자기 일에 몰두하거나, 타성에 젖어 아침에 일어나 세수하고 밥 먹고 직장이나 일에 쫓기고 집에 돌아와 저녁 먹고 재잘거리고 TV 보고 그러다 잔다. 어제도 그랬고, 내일도 그러할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언젠가 나는 지금 이 자리에 있기를 그만 두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생각만해도 끔찍한 죽음, 그렇다면 이 죽음의 문제를 우리 신앙인은 어떻게 받아들이 것인가? 바로 그 해답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 성서에 보면 예수님은 죽음의 어떤 과정에서 우리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첫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린 경우는 급방 죽은 경우이고, 둘째 나인에 사는 과부의 아들을 살린 경우는 죽어서 무덤으로 가는 도중이었고, 셋째의 경우는 죽어서 무덤에 묻혀 사흘이나 지난 라자로를 살린 경우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 자신이 부활하여 당신을 믿고 따르는 우리를 당신 부활과 영원한 생명으로 초대하는 경우이다. 그러기에 우리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을 삶으로서 이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 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때 우리가 죽음에 대해 지나치게 두려움을 갖는 것은 주님께 대한 믿음이 없거나 신앙의 깊이가 없기 때문이다.

오늘 복음을 보라!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 분은 결코 벌리 계신 분이 아니다. 아들을 잃고 슬퍼하는 어머니에 대한 연민과 사랑때문에 그 아들을 살린 주님, 그 분은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 보다 훨씬 더 깊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제 중요한 것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을 믿고 그분의 인격을 닮아 사는 것이다. 그럴때 우리는 세상의 어떤 두려움도, 죽음까지도 극복할 수 있는 것이다.

“눈으로 본 적이 없고 귀로 들은 적이 없으며 아무도 상상조차 하지 못한 일을 하느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마른해 주셨다”(1고린2,9).

파출소에서 시민 두 사람이 경찰관 방법대원 전경들에게 못매를 맞고 숨졌다.

아직도 고질적인 인권경시의 타성에 젖은 경찰의 가혹행위와 불법수사가 고쳐지지 않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이다.

권력의 충실한 시녀노릇을 하다가 빗어낸 박종철군 고문 치사사건은 5공붕괴의 도화선이 됐다.

이같은 사건이 우리의 뇌리에서 사라지기도 전에 거의 동시에 두곳서 일어난 경찰관 폭행사건은 동의대사건 때 국민들이 보내준 성원과 격려를 짓밟는 배신행위다.

국민들의 격려가 크면 클 수록 견혀해야 할 경찰이 폭행으로 시민을 죽음에 이르게 했다면 법질서와 공권력의 권위 및 도덕성이 여지없이 곤두박질한 것이다. 그러니 조선태이철규군의 사인이 익사라고 발표를 해도 믿으려 들지 않을 수밖에 없다.

피의자가 행패를 부릴지라도 경찰이 폭행으로 시민을 죽음에 이르게 할 수가 없는 것이다. 경찰의 업무량 폭주가 폭력을 정당화할 수도 없다.

국민의 공복이 되어야 할 경찰이 국민을 발아래 깔고 올라서 권위를 휘두르는 권위의식.

민생치안을 위한 「지팡이」경찰이, 인권을 짓밟는 「몽둥이」경찰로 바뀐다면 국민들은 무엇을 바랄 수 있겠는가.

경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인권존중 의식을 향상시키는 데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다. 경찰의 독립과 중립도 이같은 체질개선이 이뤄져야 하고 그래서야 국민들이 경찰을 신뢰할 것이다.

### 순정이 산책



## 예수성심 (聖心) 성월

마음의 상태를 제일 먼저 드러내는 기관이 심장이다. 그래서 우리는 즐거운 마음, 사랑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 슬픈 마음, 괴로운 마음이라는 말을 쓰고 심장을 이런 마음의 상징으로 삼는다.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열심한 신자들은 성심을 열심히 공경함으로써 자신의 구원을 확고히 다지고 많은 냉담자들을 회개시켰다.

예수님의 성심을 공경하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다. 우리 때문에 창에 찢리신 예수님의 심장은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고 우리 죄를 아파하시는 예수님의 인격을 상징한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그 열정이 십자가를 선택하게 하였고 그분의 끊임없는 사랑이 성사 안에서 우리를 끌어당기며 우리를 하느님께로 인도하고 있다.

성 보나벤티라는 “십자가 위에서 잠드신 그리스도의 늑방(심장)에서 교회가 생겨나고, ‘그들은 자기들이 찢은 사

람을 보게 될 것이다’(요한19,37)라는 성서 말씀이 성취되도록 하느님의 성의(聖意)는 한 병사가 창으로 그 거룩한 늑방(심장)을 헤쳐 열어 우리 구원의 대가인 피와 물이 흘러 나오도록 했다. 그 분 성심의 은밀한 샘에서 흘러나온 이 피와 물은 교회의 성사에 은총의 생명을 베풀 힘을 주었고, 이미 그리스도 안에 사는 이들에게는 샘물처럼 솟아올라 영원히 살게 하는 생명수가 되었다”고 한다.

### 예수성심의 약속

1674년 성녀 말가리다 마리아 알라콕이 성체조배를 하고 있을 때, 예수께서 성심을 열어 보이시고 죄인들의 냉담과 배은망덕을 탄식하면서 “적어도 너는 온갖 힘을 다하여 죄인들의 배은을 보속하라”고 부탁하시고, 그 방법으로 자주 영성체하고 매달 첫 금요일에 영성체할 것과 성시간을 가질 것을 가르쳐 주셨다.



### 성서와 함께

## 48. 구약성서의 문학유형 (I) : 교훈집과 금언

지혜문학은 세계의 모든 문화권에서 발견된다. 현자들의 말씀들, 속담과 금언들, 수수께끼들이 이스라엘의 민족 전통 안에서 후대에 전달된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의 심오한 지혜들을 간결하면서도 운율에 맞게 표현한 경구(警句)들이다. “싸워 보지도 아니하고 으스스대며 감옷을 벗지 말라”(열왕 상20, 21)는 경구는 몇 천년이 흘러도 그 깊은 의미를 잃지 않을 것이다.

고대 근동의 문화에서는 이와 같은 지혜의 말씀들을 만들어내고 수집한 전문가들이 있어 왔다. 현재로 알려진 솔로몬왕은 그 자신이 지혜문학을 창출해 냈다기보다, 이런

전문가들에게 그들이 기억하고 있는 지혜의 말씀들을 집대성하여 편집·출판하도록 기회와 여건을 마련해 주고 격려한 데서 지혜의 대가로 칭송되었다. 구약성서의 잠언, 집회서, 솔로몬의 지혜, 욥기, 그리고 몇몇 시편들은 이런 배경 아래서 탄생되었다.

이상 열거한 문학 양식들이 구약성서를 이루는 구성요소들 전부라고 말할 수는 없다. 예를 들어 축복문과 저주문들, 조약문들 등은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우리가 시도한 것은 구약성서가 탄생될 때의 초기 단계에서 각 권의 저자들이 이용한 자료들을 대표적인 것으로 골라 소개했을 따름이다.

### 이전 개원 김안과의원

•부설: 국제콘택트렌즈 •신세계인경  
이전장소: 전주시 서노송동 636-5  
(중앙성당 옆 - 구 박승창신부인과)  
☎ (0652) 74-0760  
85-3020

김안과  중앙성당

### 전주교구 시복시성운동

동정부부 순교자(이루갈다, 유포한) 현양을 위한 문예 현상  
공모전 (교료 200만원)  
모집부문: 시(편수, 매수제한 없음)  
수필--원고지 15매 내외 단편--원고지 100매 내외  
마 감: 1989년 7월 31일  
접 수 처: 560-090 전주시 서노송동 560-6  
천주교 전주교구 홍보국 ☎ 85-0041 ~ 3

### 남사무원 채용

• 자격: 1) 30~35세 건강하고 사 무능력 있는 자. 2) 고졸이상 학력, 영세후 3년이상 원자  
• 제출서류: 1) 자필이력서 1통 (명함판사건 1매) 2) 사무자격 증 소지자 원영  
• 제출기간: 6월 15일까지  
전동천주교회 100주년 사무실

성체성년 실행표어: 주님의 평화를 온 세상에 전하는 도구되게 하소서.

# 두레상

## 세계 성체대회를 앞두고 하찮은 추억 하나

이교도보다 못한 믿음 탓인지, 요즘엔 여성체를 하여도 그저 무덤덤할 뿐이다. 온갖 잡념만 몰려들고, 주일 낮 미사가 끝나갈 무렵 공지사항이 길어지면 펜스레 허기가 지는 것 같고 뭔가를 푸지게 먹었던 잠스런 추억들이 어른거리다. 그 하찮은 추억의 하나. 어려선 별건 황토 발췌인 척박한 골짜기에 살았다. 고개 너머 큰 동네에 공소가 있고, 본당은 험한 들판을 지나·십여리나 건너가야 했다. 한겨울에도 얼음을 깨고 몸을 씻고, 큰아들 살려달라고 손을 짝씩 빌며 칠성님께 백백번 절을 올렸던 어머니. 그 어머니가 칠성원군 보다 훨씬 더 막강한 만군의 주 하느님을 찾았으니, 성당 다니는 그 열성이 온 들판에 짝 퍼졌다. 어린 나도 무서로 붙잡혀 성당에 끌려가야만 했다.

성당엔 그래도 신나는 일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배부른 지금 생각하면 좀 쑥스런 얘기지만, 그건 주로 먹는 일이었다. 대축일 자정 미사 후에 먹는 떡국이나 국수, 사제관 부엌에서 얻어 먹는 진기한 서양 빵말고도, 추억은 계속 이어진다. 미사가 끝나면 모두가 반가운 인사를 나누며 한 패씩 어울려 대부님, 대모님, 대자녀 집으로 몰려간다. 이어서 소박하나 푸짐한 밥상이 나오고, 어머니 치맛자락에 매달려 간 촌뜨기도 대처 반찬에 하얀 쌀밥을 너무나 맛있게 또 배불리 먹을 수 있었다. 주일마다 그랬다. 지금도 그러는지…….

얼마 전에는 개신교 교회 바로 뒷집에 세 들어 살았는데, 주일이면 언제나 설거지하는 소리가 담 너머까지 소란스럽다. 굉장한 대식구가 식사를 하는 모양이다. 주일마다 교우들과 어울려 함께 먹고 기쁨을 나누는 것은 더없이 좋은 일이었다. 그것은 성찬의 뜻을 구체적으로 새겨 주는 하나의 작은 방법일 수도 있다. 그러한 성찬 후식(?)의 추억은 오래도록 지워지지 않을 것이다. 우린 신자수가 너무 많아서 어려울까? 우선 가까운 신자들부터 주일마다 함께 밥을 먹고, 배고픈 이웃 사람들의 이야기를 나누다면…….


## 교 구 소 식

1. 한마음 한몸 운동헌혈 : 6월18일 둔율동, 월명동 성당
2. 성체성년 성실고백소 설치 : 매주 금·토 오후3시-5시 가톨릭센터(제의실) 실시-89년6월2일부터 치명자산 금요일 오전10시30분-12시까지
3. 초등부 하계연수 : 89.6.26-29일(3박4일) 장소-송광제2야영장 대상-초등부 교리교사 내용-하계교리연수 제3차 교재연수(가톨릭교리 신학원) 대집단 레크레이션, 소창 참가비-공문참조
4. 중·고등부 하계연수 : 89.6.30-7.3(3박4일) 장소-송광 제2야영장 대상-중·고 교리교사 및 캠프봉사자 내용-캠프실기(교구프로그램제시), 레크레이션, 하계교리연수, 제3차 교재연수(부산교구 발행 학생교리) \* 참가비-공문참조
5. 초·중·고 방학 교리교재 신청 : 교재내용-초·중·고 공통으로 전주교구 어린이 청소년 성체대회와 성찬의 전례에서 파견까지 교재대금예상-학생용600원 교사용1,000원 교재신청-6월14일(수)까지 교구청 교육국
6. 성소자 모임 : 일시-89.6.18 오후2시 장소-가톨릭 센터 대상-초·중·고·대·일반 남자 \* 준비물-미사도구, 필기도구
7. 가톨릭방송안내 : CBS 기독교방송 라디오 매일저녁 11시45분-12시 CBS 월요일 아침8시 「CBS 칼럼」 MBC 라디오 일요일 10시25분 「일요명상」
8. 축! 영명일 : 11일(성 바르나바) 박영규신부 13일(성 안토니오) 권영균 양재철 신부님 축하드립니다.
9. 사랑의 씨튼 수녀회 성소피점 : 89.6.25(매월 네째주) 9시30분-17시 장소-광주시 북구 본촌동 사랑의 씨튼 수녀원(062-525-2004) 준비물-미사, 필기도구 교통-고속버스 운암동터미널 하차후 19번버스
10. 시청각 자료대여 : 비디오, 슬라이드를 많이 이용합니다. 문의(85-0041)홍보국 \* 비디오, 슬라이드를 빌려가신 본당이나, 단체는 속히 반납바랍니다.

## 요십이(827) 감병오



조립식건축 전문  
**京一建業**  
김 해선 (레이지오)  
전주시 신도솔동 흥국생명 빌  
☎ 73-1611, 75-0161

항상 애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선미꽃집**  
 이 마리아  
범 디 또  
☎ 84-2628

**이준호피아노음악학원**  
●성악 입시생 지도  
☎ 75-1812  
송천동 호반촌 미사면  
아파트상가 301호  
\* 버스운행  
원장 이 준호 (안드레이)

**중앙가축병원 이전안내**  
중앙가축병원이 신축관계로 기린로변으로 이전 개원하였습니다.  
원장 임 규용 (안드레이) · 이 화숙 (레지나)  
☎ 72-7794, 85-9822

한방보약 · 예방의약  
용(元茸) 九歲葍 인삼  
**영세당약국**  
의사 정우진 (이시약) 황신숙 (리브가)  
전주시 완산국교 사거리 ☎ 6-6422, 6-5326 \* 일요일은 휴무

# ☐ 남전주지구 본당소식 ☐

## \*노승동

사제관 82-9663 주임신부 이 재 후  
사무실 82-9661 사목회장 노 인 석  
수녀원 82-9662

1. 한마음 한몸운동 헌혈 : 오늘10시
2. 꾸리아 월례회 : 오늘2시
3. 부녀회 월례회 : 13일 어머니미사후
4. 형제회 피정 : 16일 8시~4시 장소-글라라 봉쇄 수녀원
5. 동진APT남성구역회 : 이창남씨택 16일 8시
6. 어린이 첫 고백성사 : 16일 4시 어린이와 유아세례식 17일3시
7. 성령기도회 : 16일 8시
8. ME목련팀 : 16일 7시30분
9. 초·중·고 교리교재준비 부모님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값600원
10. 병자방문 : 14일 9시~15일 봉사자 환영합니다.  
□ 지난주봉헌금 : 634,150원 □ 교무금 : 486,000원

## \*복자

사제관 86-3453 주임신부 김 기 수  
사무실 86-3455 사목회장 신 일 군  
수녀원 86-3454

1. 울뜨레아 : 오늘 공식미사후
3. 빈첸시오회 : 오늘 꾸리아후
5. 부녀회 : 15일 오전10시
6. 부활영세자 첫 고백성사 : 16일 오후7시
7. 구역분과회 : 17일 오전10시
8. 성우회 : 18일 9. 요셉회 : 18일
10. 성지순례 : 18일 7시 정각출발 특전미사와 새벽미사(5시30분)만 있음
11. 감사 : 제대회에서 제병·제주·성작2·성합2·도금  
금주전례 : 해설-황만금 독서①육경수 ②이현정  
봉헌-육경수씨 부부  
차주전례 : 해설-윤귀자 독서①정동민 ②김하영  
봉헌-정동민씨 부부  
□ 지난주봉헌금 : 478,715원 □ 교무금 : 683,100원

## \*상관

사제관 82-5079 주임신부 양 석 현  
사무실 82-5434 사목회장 유 순 천

1. 성가집회, 청년회 월례회 : 차주 공식미사후
2. 구역미사 : 15일 저녁8:00 하신광
3. 유아세례 : 22일 오전미사후 사무실에 신청하세요.
4. 성체강박 : 14일 저녁미사후
5. 목주기도봉헌 : 1381단봉헌 \*정성껏 봉헌해 주세요.
6. 미사시간변경 : 주일공식미사-오전9:30 학생미사-오후3시  
어린이미사-토요일 오후4시 교리-오후3시
7. 예비자교리 : 공식미사후  
□ 지난주봉헌금 : 218,420원 □ 교무금 : 191,000원

## \*서학동

사제관 84-8307 주임신부 서 석 기  
사무실 86-4929 사목회장 김 환 용  
수녀원 84-2276

- ※ 6월은 예수성심성월입니다. 주님께 많은 기도를!
1. 회의 : ①반장회-오늘 공식미사후 ②프란치스코3회-오늘 오후 2시 ③성심회-6월13일(화) 오후2시
  2. 모임 : 전례부모일-오늘 저녁미사후
  3. 알림 : ①6월중가정방문-14일(수)7반~8반 21일(수)9반 ②제대후원회 회장-김순자(대례사) 총무-남정숙(제노페라) 앞으로 수고해 주십시오.
  4. 성지순례를 무사히 마치고 돌아옴을 주님께 감사드리며 인도하신 분들과 봉사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많으셨습니다.  
□ 지난주봉헌금 : 417,260원 □ 교무금 : 149,000원

## \*용머리

사제관 6-2335 주임신부 조 정 오  
사무실 87-0441 사목회장 함 희 상

1. 임시사목회 : 16일 금요일 8시
2. 구역장·반장모임 : 오늘 공식미사후
3. 울뜨레아, 베로니카회 모임 : 다음주 공식미사후
4. 중·고 교리모임 : 매주 토요일 오후5시

5. 성체대회 뺏지및 스티카판매 : 뺏지1,000원(전신사용) 스티카 2,000원(차량용)
6. 청소년봉사 : 6월12일~17일 서암산2가 서편  
□ 지난주봉헌금 : 285,720원 □ 교무금 : 475,000원  
□ 신축헌금 : 14,060,000원(입금 8,170,000원)

## \*전동

사무실 84-3222 수녀원 82-9234 주임신부 이 수 현  
유치원 84-8347 레지아 83-5085 보좌신부 김 선 태  
사제관 82-6232, 82-7245 사목회장 안 득 수

- ※ 성전보수 헌금바랍니다.
1. 자모회 : 오늘 오전10시
  2. 내장산등반안내 : 12일(월) 오전8시30분 출발 회비3,000원 본당저녁미사 없음
  3. 젊은이피정(M, B, W교육) : 6월19일~23일 저녁7시30분~10시 30분 회비2,000원 \*본당 젊은이들의 빠짐없는 참석바랍니다.
  4. 수요성서 공부 : 14일(수) 저녁미사후-사무실 2층
  5. 성령기도회 : 16일(금) 저녁미사후-사무실 2층  
□ 금주보수비헌금액 : 564,300원 □ 현재모금총액 : 29,965,910원  
□ 금주보수비신입액 : 1,100,000원 □ 현재신입총액 : 160,736,000원

## \*평화동

사제관 85-6979 주임신부 박 병 준  
사무실 83-8245 사목회장 김 광 환  
수녀원 87-0229

1. 예비자입교식 : 오늘 공식미사중
2. 성모회 : 다음주 공식미사후
3. 자모회·성심회 : 13일(화) 오전10시30분 오후2시
4. 형제회 : 14일(수)-12, 21, 24, 25, 26, 19, 20반 15일(목)-15, 16, 17, 18반 5. 제대회 : 오늘 공식미사후(제대회원을 모집합니다)
6. 주일학교 어린이를 토요일 오후2시30분까지 성당에 올 수 있도록 부모님들께 부탁 말씀드립니다.
7. 성당신축과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오니 형제자매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8. 청년회장 : 김병석(바오로)인사드립니다
9. 신축금 신입자 : 박순남 5만원, 김원금 2만원
10. 차주전례 : 해설-박종구 복사-김홍기 유공수  
봉헌-조선 부부  
□ 지난주봉헌금 : 344,330원 □ 교무금 : 300,000원  
□ 자선헌금 : 39,825원 □ 신축금신입총액 : 146,379,836원 □ 올겐기금신입총액 : 3,430,000원

## \*효자동

사제관 83-3841 주임신부 유 종 환  
사무실 84-0915 사목회장 문 대 현  
수녀원 84-4804

1. 배운 성지순례 및 꽃동네 방문 : 6월11일 효자테니스장 앞 집결 06:30 승차완료06:50 출발07:00 준비물-미사준비, 점심, 간식 2. 축영명 : 권안도니오 신부님(6월13일 화) 본당 위해 수고하시는 신부님께 많은 기도바랍니다.
3. 신자가점 사목방문 : 쌍용주택, 태백연립 및 부근주택 \*교적에 붙일 가족 사진을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무실)
4. 예비자 교리시간 안내 : 일09:30 수-후07:30
5. 모임안내 : 금주-수 6월14일 10시30분 다음주-모니카회 대례사회 수 6월21일 11시
6. 청소년담당 : 금주-효자1단지APT 다음주-광진목화 동편  
□ 지난주봉헌금 : 747,960원(1036명) □ 교무금 : 80,000원 □ 89년도 교무금 신임비탈(58.9%) 성체조배실 진입로 주방위한 2차헌금 : 308,620원

## \*효자우전

사제관 86-3712 주임신부 박 창 신  
사무실 86-3711 사목회장 김 용 무  
수녀원 87-0711

1. 사목회 : 오늘 저녁미사후 임원 전원 참석요망
2. 울뜨레아 월례회 : 공식미사후
3. 자모회 월례회 : 16일(금) 10:00미사후
4. 구역(반) 미사 : 14일(수) 20:30평화주택
5. 두현리 공소미사 : 16일(금) 19:30
6. 교무금은 매일 정성껏 봉헌합니다.
7. 차주모임 : 사목회, 새벽회  
금주전례 : 해설-박명래 독서①채완병 ②김순덕  
기도-한병갑 이현희  
차주전례 : 해설-한병갑 독서①김재범 ②최현옥  
기도-박장춘 임혜선  
□ 지난주봉헌금 : 397,290원 □ 교무금 : 687,000원